

HPAI 발생 세계 닭고기 시장 변화

- 아시아권 수출국 큰 타격, 남미권 수출국 급부상 -

◇ 취재 / 김종준 과장/기자
(jjun@poultry.or.kr)

지난 12월 15일 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가 발병한 이후 동남아 10개국, 미국과 노르웨이에서도 추가 발병이 있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은 가금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 소식이 보도되어 국가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도달하였고, 세계가 동남아 국가들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외국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처 상황을 알아보았다.

I. 국가별 HPAI 발생현황

1. 발생 추이

- 베트남, 태국 6,200만수 살처분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2월 17일 현재까지 세계 12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약 7,600만수의 닭이 폐사 또는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동남국가가 발생율이 99%에 달하였다.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공산권 국가로 외부 유출 정보가 전혀 없었다가 지난 1월에 중국정부가 공식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발표하였다. 베이징 연합뉴스에 의하면 중국은 2월 17일까지 17개 성, 시, 자치구 43개지역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하였다. 태국은 125개 지역, 베트남은 57개성에서 가금인플루엔자(H5N1)이 발병하였고, 두 국가 21명 사람에게 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최소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닭, 오리 등 가금류 6,200만수를 살처분하였다.

세계식량기구(FAO) 이를 두고 “연간 세계 닭고기 소비



량의 26%(2천만톤)를 공급하는 아시아의 닭고기 시장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봤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선진국인 일본, 미국, 노르웨이에도 인플루엔자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산란계 1개 농장에서 발생하고 2월 17일 현재 일본 남동부 오이타현 코코노에정 만가에서

추가 발생하였다. 노르웨이는 야생오리에서 발병하여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델라웨어주(2월 7일), 뉴저지주(2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2월 12일)까지 확산되었다. 미국은 1980년대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수백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고, 1997년(칠면조), 2000년(생축시장), 2001년(닭), 2002년(산란계), 2003년(산란계), 2004년(닭)에서 발생되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상존 지역으로 굳어가고 있다.

2 감염 경로

- 인간 감염설로 피해 증가 -

태국과 베트남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1명으로 이중 14명이 사

표1. 최근 해외 가금인플루엔자 발생현황

(2월 17일 현재)

발생 국가	발생일	살처분수수/폐사	발생지역	혈청형	조치사항
한국	2003.12.15	400만수(오리,산란계,육계,종계) 살처분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H5N1	2004.12.15 OIE 보고
베트남	2003.12.23	3,700만수 살처분	통안, 티엔, 기안, 하노이주 등 57개성	H5N1	2004.01.14 수입금지
일본	2004.01.12 2004.02.17	3.4만수(산란계) 살처분 7수(애완용닭)살처분	야마구찌현 오이타현	H5N1 H5N1	2004.01.12 검역중단 2004.01.16 수입금지
대만	2003.12.31 2004.01.15	10.2만수 살처분(닭,오리)	창화현(중서부), 태남 가의량, 윤림지방	H5N1 H5N2	2004.01.02 검역중단 2004.01.25 검역중단
캄보디아	2004.01.23(4) (확인필요)	300수 이상 폐사	수도근교	H5N1	2004.01.27 수입금지 2004.01.23 검역중단
태국	2004.01.23	2,500만수 살처분 6.6만수 폐사(산란계)	수관부리 등 125개지역	H5N1	2004.01.24 수입금지 2004.01.25 검역중단
인도네시아	2004.01.25	470만수 이상 살처분	자바섬, 발리,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 10개주	H5N1	2004.01.29 수입금지 2004.01.27 검역중단
파키스탄	2004.01.26(8) 확인필요	400만수 폐사	수도근교 양계장	H5N1	2004.01.31 수입금지 2004.01.27 검역중단
러오스	2004.01.27	4500수이상 폐사(닭)	수도 비엔티안 인근 양계장	H5N1	2004.01.28 수입금지 2004.01.27 수입금지
중국	2004.01.27	121만수이상 (닭, 오리)	호북성, 호남성, 산둥성, 안휘성, 광둥성, 광서성, 감숙성, 섬서성, 운남성, 절강성 등 17개성	H5N1	홍콩 Gold Coast 야생조수 1수 발생-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2004.01.30)
미국	2004.02.07 2004.02.10 2004.02.12	1.2만수(닭) 7.2만수(닭) -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	H7N2 H2N2	2004.02.07 검역중단
노르웨이	2004.02.12	야생오리			

망하고 2명이 회복하여 퇴원하였고, 5명이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염경로나 사망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불투명한채 현재까지 전염가능성 만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캄보디아에서 4명이 감염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중에 있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감염의심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중국이 발생량이 계속증가하고 있고, 감염설까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발생원인으로 베트남으로부터의 밀수 또는 철새에 감염되었고, 태국은 철새 또는 국경 무역(베트남)에 의하여 전해지고,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에 의한 것이 많고, 베트남도 태국으로부터 밀수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철새가 감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I. 각국의 시 대처실태

1. 방역대책

1) 중국

이동제한 지역 주민 철저히 통제

중국 당국은 1월 30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전담 총지휘부를 긴급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부총리 후이량위(回良玉)가 조장, 국무위원 화젠민(華建敏)이 부조장을 맡았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통일적 지도와 각 지방 관련부문 담당자 참가의 지휘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지구의 가금인플루엔자 대책을 지휘하며, 감염방지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은 <전국 가금인플루엔자 응급대책안>중 감염보고와 확인수속에 관한 규정을 엄밀히 실시하고 있다.

이법에 따라 가금사육 판매수송, 가공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발생지의 상기 인원을 중점적으로 감독, 유행병학조사, 소독 처리 담당 인원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배포,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에 감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살 처분하고, 5km까지 이동제한을 두었다. 1월 27일 현재 살처분 수수는 121만수라고 발표하였다. 효율적인 방역차단을 위하여 3~4km 지역의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3km의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또한 발생 지역의 오리·거위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다. 상하이 시 정부는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가금류 소유 농민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한 교육당국은 2월 2일 춘절(春節) 방학을 끝내고 등교한 100만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사실을 반드시 학교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새 시장’에 대해선 위생 당국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하였다. 위생당국은 직업상 닭·오리 등 조류를 만지거나 접촉해야 하는 6천여 명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는 등 초비상 단계에 들어갔다.

가금인플루엔자 연구에 170억원 책정

백신개발, 응용, 신속한 검사, 진단기술이나 관련제품개발, 바이러스의 변이나 병원체 분석, 새로운 감염경로나 감염예방, 억제기술, 방

호, 살균기술이나 관련상품, 항바이러스약의 선별 등에 1억위엔(약 170억원)을 책정하여 사용키로 하였다. 한편 중국 온가보(溫家寶)총리는 2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조류 인플루엔자대책을 연구하여 가금업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승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대책지휘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가금인플루엔자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가금인플루엔자대책, 가금업 발전지원에 관한 정책』을 승인하였다.

회의에서 거론된 구체적 7가지 대책은 ① 지도 강화로 과학적이고 법적 대책을 세워 강력한 방지작업을 한다. 리얼타임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 정상 생산 질서,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② 대책작업 중점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확대방지, 사람에게 전염방지에 둔다.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발생지역에 대해 소독, 방역, 가금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지역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강화한다. ③ 가금인플루엔자대책에 힘쓰는 동시에 농업증산, 농민증수에 임한다. 당면 춘계경작을 연기시키지 말고, 모든 방법을 짜내 농민수입 증가, 가금인플루엔자에 의한 손실 보전을 한다. ④ 조류인플루엔자대책에 필요한 물자 생산, 수송, 비축을 한다. ⑤ 가금폐기, 방역조치를 할 경우 보상 제도를 실

시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농가에 지불한다. ⑥ 동물방역시스템과 방역팀 계획을 제정 실시하고 수의관리체제 개혁, 동물역병에 대한 예방과 응급능력을 높인다. ⑦ 중점가금사육기업, 가금 가공기업 등 현저히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보조, 과세우우, 정부기금감면 등의

표2. 중국의 가금인플루엔자 감염지역 현황

(2월17일 현재)

순서	일자	발생지역	속종	병성확정결과
1	1월27일	호북성 무형시 조림지구	닭	고병원성(1/30)
2		호남성 무강시	오리	고병원성(1/30)
3		광서성 퉁안현 정당진		고병원성(1/27)
4	1월30일	안휘성 팡덕현		고병원성(2/5)
5		안휘성 마안산시 우산구		고병원성(2/5)
6		안휘성 상해시 남회구		의사
7	1월31일	광둥성 계동현		의사
8		호북성 악주시		고병원성(2/7)
9		광둥성 조안현		고병원성(2/3)
10	2월 1일	절강성 영강시		고병원성(2/8)
11		호북성 의창시		의사
12		운남성 정공현		고병원성(2/4)
13	2월 3일	하남성 평여현		고병원성(2/7)
14		신강생산건설병단 농업 제12사단		의사
15		감숙성 란주시 안녕구		의사
16	2월 3일	감숙성 란주시 정원현		의사
17		안휘성 부양시 영주구		고병원성(2/5)
18		안휘성 부양시 제수시		고병원성(2/5)
19	2월 4일	호남성 평강현		고병원성(2/8)
20		호북성 양번시		고병원성(2/8)
21		섬서성 서안시 장안구		고병원성(2/8)
22	2월 5일	운남성 곤명시 관도구		의사
23		감숙성 고란현		고병원성(2/8)
24		강서성 동향현		의사
25	2월 7일	운남성 석림현		의사
26		광둥성 라정시		의사
27		광둥성 해풍현		고병원성(2/8)
28	2월 8일	강서성 귀계시		고병원성(2/5)
29		운남성 곤명시 서산구		의사
30		감숙성 란주시 서고구		의사
31	2월 16일	강서성 남창시 청운보구		고병원성(2/7)
32		광서성 남녕시 흥녕구		의사
33		광둥성 주해시 두문구		의사
34	2월 17일	광둥성 무명시 무항구		의사
35		길림성 바이청시	닭	의사
36		산둥성		
37	2월 17일	호남성		
38		호남성		

※ 자료인용 : 중국농업신식량(농업부) 자료제공 : 서울사료
 ※ 2월 9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5건은 제외되었음.

조치로 지원해 준다. 은행도 유동자금 대출에 의한 지원을 한다.

뉴스 발표는 국가이익이 우선

중국 정부는 『국내돌발사건 뉴스발표방법 개선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을 채택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중국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할 때의 뉴스발표방법 개선 및 강화는 당과 국가에 있어서 유익하여 국민권리를 지키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하였다. 각 관련부문을 이를 중시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에 입각, 뉴스 발표제도를 정비하여 선전부문과 협력해 뉴스 발표를 하고 있다.

2) 일본

발생농가 반경 30km이내 이동제한

지난 1월 12일 일본 야마구치현 가와히가시정의 원원팜 야마구치 채란계농장과 지난 2월 17일 오이타현 민가 애완닭에서 79년만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야마구치현은 계사의 소독 후 잔여계도 전부 살처분하고, 반경 30km 이내의 닭과 계란 이동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30농장에 병원체 확산의 우려가 있는 닭과 계란의 출하정지, 사료 등의 이동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구역 내의 도계장이나 계란 집배센터를 폐쇄하였다.

또한 원원팜 야마구치농장은 계란을 현내에만 출하되어 야마구치시내를 중심으로 약 100 점포를 통해 팔려나갔을 것으로 보고 이 농장 출하한 계란은 라벨에 상품명 외에 「W」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12월 28일 이후 출하된 약 364,700개의 계란을 회수하였다. 한편 농수성은

은 「계란이나 닭고기를 먹은 사람의 감염 예는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철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어 닭의 증상을 감시하도록 도도부현에 지시하였다.

두 번째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이타현은 17일부터 30km 이내의 49양계시설과 닭등을 기르고 있는 민가 수백호를 검사하였다. 또한 구마모토현과 연계하여 30km 이내의 닭과 계란의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이번 발생에 대하여 일본 농수성은 애완용 닭을 감염 모니터링조사하는 등 방역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인간감염 환자 대비 책자 배포

후생노동성은 1월 12일 보건소를 통해 원원야마구치농장의 양계장 관계자들에 발열이나 감기와 같은 증상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의 철저히 지도하였다. 또한 도도부현에 대해 가금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AI에 관한 책자도 자치체에 배포하였다. 이 책에는 1월 16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침입방지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현내 소규모농가 등 대책 진척상황을 정리하였다. 현내 3개 가축보건위생소가 시정촌의 협력으로 소규모 사육자도 파악하고 있다. 순회지도와 소독약 배포, 시정촌의 홍보지와 회람판을 통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5억 손실보전 지원책 마련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

생한 문제로 현 니이 지사는 1월 15일 이동제한구역(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0km) 내의 양계농가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한 약 2억5천만엔(한화 약 25억원)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지원내역을 보면, 채란농가에 대한 약 1억 8,400만엔(18억4천만원), 출하를 못하여 소각하는 계란에 대하여 약 5,200만엔(5억2천만원), 육계 농가에 대한 약 1,300만엔(1억3천만원)이다. 니이 지사는 「국가의 지원책은 보전이 극히 낮아 불충분」하다고 판단, 국가의 항구적 보상제도 창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채란농가에는 계란의 가치감소분과 수송 보관비용의 각 1/2를 보상하고, 나머지 1/2는 국가가 긴급자금을 조성기로 하였다.

손실보전 기준액은 농가별로 실태에 맞게 실질적 매입과 같게 지원되고, 유통할 수 없는 약 2,000톤(340만개)의 계란 중 유통기간(2주간)이 넘은 1,300톤은 소각 처리하고, 기한 내의 700톤은 가공용 액란으로 사용하는 등 식용란으로 출하하지 않았다. 육계농가에 대해서는 약 20만수 분을 현 단독으로 보조하였다.

3) 베트남

인간감염실 공포 확산

64성중 57성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6명의 인간감염 사례가 발생한 베트남은 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모든 성 입구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57개성을 장관별로 2개성씩 맡아 특별관리하고 있다.

각 성별 책임을 맡은 장관은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살균소독제를 살포

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금류들을 폐기하는 한편, 대도시로 통하는 모든 국도에 가금검역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수출입을 금지하며 해상 및 국경 지대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방역기금 3,000억 책정

「월간 POULTRY 인도네시아」의 엘리스 기자에 의하면 10개주에서 470만수를 살처분한 인도네시아는 백신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생지역 반경 1km이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1~2km이내 가금류에는 백신을 접종할 것이며, 정부는 3개 약품회사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10억수분을 확보 중에 있다고 전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백신프로그램, 인력동원 및 장비 동원에 필요한 금액은 2,500백만달러(약 3,000억)를 책정하였다.

5) 태국

특별국가기획위원회 설립 - 780억 지원금 마련

태국 정부는 1월 26일 고병원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사람감염 사망으로 구성된 특별국가기획위원회를 열고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태국 농림부는 보건부와 협조하여 지역별 조사 대신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전염병학적 조사를 실시기로 하였다.

바이러스가 발견시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내에서는 가금류 강제 도축을 실시하고, 엄격한 OIE 표준 절차를 실시하며 그 지역을

즉시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60Km내에는 이동통제 및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Km 내에서는 가금류 생산품의 이동 및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문제의 확대와 장비 부족 등은 농림부가 각 관계부처와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조사절차 및 질병 박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줄 민간부문과도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 및 각 관계부처의 협조와 함께 정부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본 국내 가금류 농가 및 관련 기업 지원 예산으로 26억바트(780억원)를 배정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

태국정부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대중들의 과도한 반응을 피하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정부는 50,000장에 달하는 안내서 배부하였다. 태국정부는 H5N1 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으로써 감염 가금류 처리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인 법적 제재

를 가하고 있다.

6) 미국

농장 이용 장비 경매 취소

미국 지난 2월 6일 미국 전체 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델라웨어주의 켄트 지역 한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닭 1만 2천수를 도살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이클 스킨스 델라웨어주 농무장관은 “이번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종류인 ‘H7’ 바이러스”라며 “사람의 건강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최초 발생지에서 5마일(4.5km) 떨어진 서섹스의 농장에서 두 번째 인플루엔자(H2N2)가 발생하였고, 2월 12일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추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우선 델라웨어주는 서섹스 지역의 7만2천수의 닭을 도살 처리하기로 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살처분 수수 공개를 미루고 있다. 한편 발생지역에서 사육된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였다. 델라웨어주는 이와 함께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이용하는 장비 경매도 취소하도록 했다.

표3. 미국의 연도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년 도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지 역	유타주,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주	메사츄세츠주 코네티컷주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주, 뉴욕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뉴욕주/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발생형	H7N3, H7N2	H7N2	H7N2	H7N2 H7N2 H7N2	H7N2, H5N2, H5N1, H5N3 H7N2	H7N2	H7N2 H2N2 -
축 종	칠면조 산란계	산란계	생육시장	생육시장 닭농가 상업용농가	가금, 오리농장 칠면조농장, 산란농장 생육시장	산란계농장	닭농가 닭농가 닭농가

2 소비 및 수급대책

1) 일본

양계협회 차원 국민 안심 홍보

일본은 태국산 및 중국산의 가공계육의 수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일본정부가 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튀김이나 닭꼬치 등 닭고기 가공품이 전체의 98%를 차지, 최근의 수입중단으로 인해 외식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산 닭고기 도매가격은 태국산이 수입 정지된 이후 1월 22일에 비해 1월 27일 도쿄 시장에서 가슴살이 8% 올라가는 등 상승기조를 나타내 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승세는 일본 정부당국과 일본 양계협회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양계협회는 가금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① 닭과 오리는 75도 이상으로 익혀 먹으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② 조류독감은 현재까지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염된 사례가 없다는 점, ③ 영국·호주·네덜란드·홍콩 등 외국의 조류독감 발생시에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점, ④ 계란은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의 관련업체 식당 등에 배포 후 첨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였다고 한다.

2) 태국

1억2천만원 보상금 지급 보험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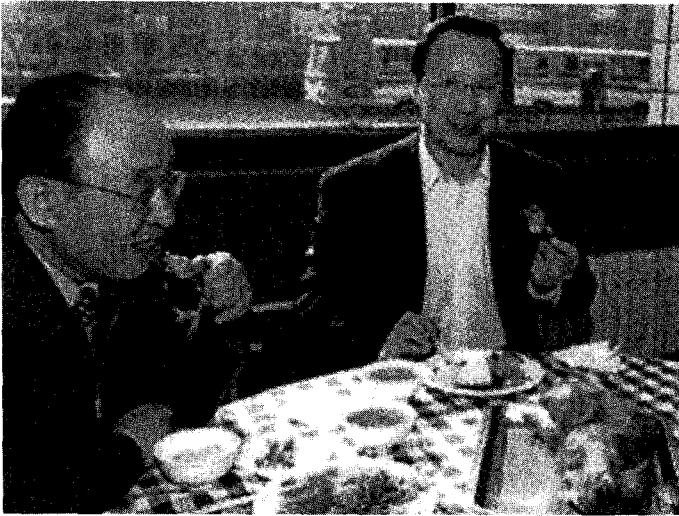
태국정부는 지난 2월 10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최고 10만달러(한화 1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보험제도를 도입까지 검토하였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보상금 규모를 50만바트(1,500만원)로 책정토록 하였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태국산 닭수입국들과 조속 수입 재개를 설득키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3) 중국

닭-오리고기 먹기 캠페인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닭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두청림(杜青林) 농무부장을 시작으로 한정(韓正) 상하이시장, 가오창(高強) 위생부 부부장, 광둥(廣東)성위원회 부서기, 저장(浙江)성 부성장 등 중국 고위 관리들도 앞다퉀 닭·오리고기 먹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휘부 대책팀장을 맡고 있는 두청림(杜青林) 농업부장은 2월 9일 농업부 식당에서 술선하여 닭요리를 먹었다. 두 부장은 주위 직원에게「안심하십시오. 이곳의 계육은 모두 감염지역 이외의 것으로 절대로 안전하니까」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이에 앞서 상해시장인 광둥성 성위원회 부서기, 절강성 부성장 등 많은 간부가 술선하여 닭고기를 먹고, 가금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람들의「닭 공포증」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닭고기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은 1,200만톤을 넘어 세계 전체의 19%를 점한다. 계란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40%를 넘는다.

Ⅲ. 세계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닭고기 수출에 호재를 맞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2월 3일 한국과 5만톤의 닭고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 지난해 총 18억 달러 1백90만톤의 닭고기를 외국에 판매하였다. 일본 농수성 디마지오 장관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대규모 수입업자들이 잇따라 브라질을 방문해 닭고기 생산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조류독감 감염국인 태국에서 브라질로 수입선을 바꾸는 국가들이 늘면서 올 수출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수출 가격도 오르고 있다. ‘뼈 없는 닭다리’의 경우 최근 1개월동안 톤당 1천8백달러에서 2천3백달러로 3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덕분에 브라질의 대표적 닭고기 업체인 사디아 페르디가오 세라 등 3개 업체의 주가는 최근 한달동안 30% 이상 치솟는 등 연일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 최대의 닭고기 제품 제조업체인 펠그림 프라이드와 타이슨 등이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펠그림이 발생일 5.5% 급락한 이후 다음날 1% 이상 오름세를 나타냈고, 타이슨은 발생일 2% 가량 떨어지는데 이어 다음날도 1% 이상 하락세를 지속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 HPAI가 발생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의 조류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미국에서 AI가 발생하자 일본과 한국 등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이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질병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출국인 중국, 미국, 태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브라질과 칠레 등의 닭고기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라질 닭고기보다 FTA가 체결된 칠레산 닭고기 수입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계**